

줄기세포에 관한

‘진실찾기’ 진원지 된 ‘BRIC’

글 | 권영일_ 사이언스타임즈 논설위원 sirius001@paran.com

“인터넷 사이트인 BRIC에 소장 과학자들이 황 교수팀의 논문에 나와 있는 DNA 지문분석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함에 따라 재검증이 이뤄지게 됐고 그 이후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즈메디 병원 줄기세포들도 서로 사진이 겹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RIC과 DC인사이드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미즈메디 병원 출신 김선종과 박종혁 연구원, 윤현수 교수, 노성일 이사장 등이 저자로 돼 있는 4개 논문에서 1번과 4번, 6번 줄기세포 사진들이 서로 겹친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논문 진위 논란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내용의 일부다. 언론보도는 모두 BRIC을 인용하고 있다. 이처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에 관한 ‘사이언스’ 논문 진실찾기의 진원지가 된 BRIC 사이트(www.bric.postech.ac.kr)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것이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의혹 가장 먼저 제기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이곳의 젊은 생명 과학도들은 한국 생명과학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BRIC은 포항공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의 영문 머릿글자를 딴 약칭이다. 1996년 1월 설립돼 지난 10년 동안 생명과학연구자들의 정보 수집 및 교환, 체계적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해왔다.

BRIC은 현재 7000여 단체회원과 3만 명의 개인 회원을 두고 있

다. 포항에 있는 연구소보다 젊은 바이오 분야 과학도들이 토론하는 공동 연구 사이트 등 온라인 활동으로 명성이 더 높다. BRIC 사무실의 주소는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포항공대 청암학술정보관 1층 137호다. 명성(?)에 걸맞지 않게 남홍길 소장을 포함해 11명의 연구원이 고작이다.

황우석 교수팀 논문의 사진 중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BRIC의 인터넷 사이트 ‘소리마당’은 청년 과학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열린 무대다. 연구과제를 풀지 못해 답답할 때 문제점을 공개 과제로 올려 자유토론을 거치면서 답을 얻곤 했다.

이처럼 젊은 과학도들만이 드나들던 사이트 BRIC에 어느 날 큰 소란이 벌어졌다.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 과학도가 지난해 12월 5일 새벽 “황 교수 논문의 부속자료에 실린 줄기세포 사진 중 5쌍이 같은 사진으로 의심된다”는 글을 소리마당에 올린 것이다. 회원들간에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고, 이 상황은 삼시간에 외부로 퍼져 나갔다.

어노니머스(anonymous)라는 아이디를 가진 회원이 줄기세포 사진 중복 의혹을 처음 제기한 ‘쇼는 계속돼야 한다’는 글은 1만5천 건이 넘는 조회를 기록했다. 200개가 넘는 댓글도 붙었다. 지방 대학의 박사과정 연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릉~’도 6일 ‘디엔에이지문 데이터 살펴보기’라는 글을 올렸다. 15일엔 미즈메디 병원 소속 연구팀이 ‘국제생식학회지’에 제출한 논문과 황 교수 논문의 줄기세포 사진 가운데 일부가 같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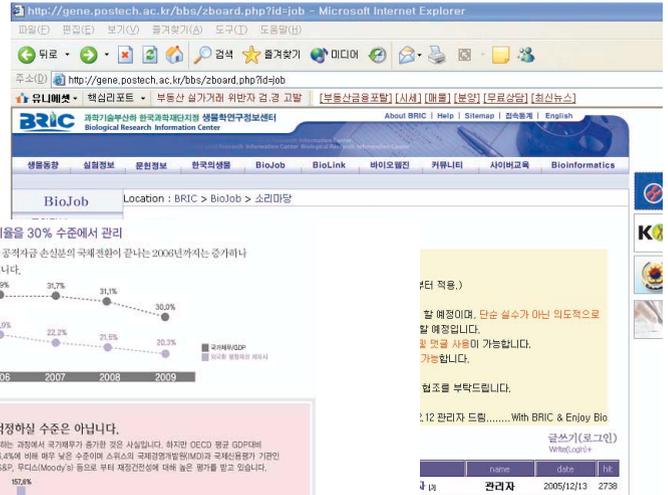
‘진 황우석파’와 ‘반 황우석파’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치열

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국보급 과학자’ 황우석 교수는 “국익을 위해 과학적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개미 생명과학자’ 들의 집요한 의혹 제기에도 결국 입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그리고 “2005년 논문의 근거가 되는 줄기세포의 사진이 잘못되었다”는 황 교수의 기자회견을 끌어냈다. 이처럼 젊은 생명과학자들은 BRIC을 근거지로 삼아 황 교수 논문의 사진조작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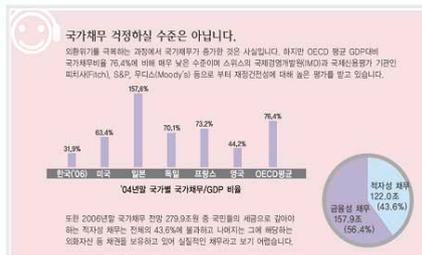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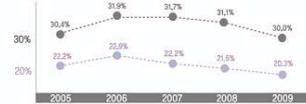
“과학 토론은 사실만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것”

남홍길 소장은 “BRIC에서 만나는 젊은 과학자들의 신선한 의욕과 용기는 한국의 생명과학에 대한 미래가 젊다는 것을 말한다”며 “BRIC의 소리마당을 본 외신들이 한국 과학계의 자정능력을 인정해 준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 교수와 BRIC 운영진들은 이번 줄기세포 파동으로 많은 고생을 해야 했다. 이용자 폭주와 인신공격성 글들로 업무 진행과 게시판의 고유기능이 마비돼 운영진들은 이에 따라 4차례의 운영위를 열고 대책을 강구했다. 1단계조치(5일)로 추측성 글과 폄글 등은 삭제 및 경고조치를 취했다. 효과가 미흡하자 회원제로 돌리는 2단계(7일)조치를 취했다. 그래도 효과가 없자 부정정보 입력자를 강제 퇴출시키는 3단계조치를 취했다. 지금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회원만 입장이 가능한 폐쇄형 회원제로 운영하고



■ 국가체무의 GDP대비 비율을 30% 수준에서 관리
국가체무의 GDP대비 비율은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제연환에 관해서는 2009년까지는 증가하나 2007년부터는 감소할 전망이다.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을 때는 하루에도 6만 명 이상이 BRIC의 사이트를 찾고 있다. 소장 생명과학자들은 게시판에서 과학적 근거와 진실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토론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BRIC 게시판 운영자들은 24시간 꼼꼼하게 게시판을 모니터링 하며 토론의 격조를 유지하고 있다.

운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강수 연구원은 “과학 토론은 여론에 따라가지 않고, 사실만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상당수가 열악한 비정규직 처지의 소장 학자들이 과학에 대한 애정과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참여한다”고 말했다.

BRIC은 사실상 이번 DNA 사진 조작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한 일등공신이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BRIC은 지난해 발표한 10대 뉴스에서 ‘인간 배아줄기 배양 성공과 황우석 교수 신드롬’을 바이오 톱뉴스로 뽑은바 있다.

남 소장은 “세계 생명과학계를 주도해 온 한국에서 논문 조작의혹이 불거져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세계인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학 차원의 진실 규명작업이 착수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⑤

BRIC의 설립자, 남홍길 교수는?

BRIC을 설립, 10년 동안 운영하다 2006년 봄 후임에게 인계인수를 앞두고 있는 남홍길 교수(48)는 지난 1982년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한 후 도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조교수로 임명된 후, 부교수를 거쳐 현재 교수로 재임중이다.

한국생물학회 경북지부 부지부장, 경상대 우주연구센터 운영위원, 영남작물시험장 겸임연구원, 한국생물정보학회 창립이사·부회장을 거쳐 현재 회장으로 재임중이다. 또한 지난 1999부터 한국바이오벤처협회 부회장직도 맡고 있다. 한국과학재단이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과 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저서로는 『식물분자유전학방법론』 『최신생물공학』 『형질전환체의 분석』 등이 있다.

남 교수는 특히 올레초 식물의 빛 신호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해 생물학분야 세계적인 권위지인 ‘셀’ 2월 11일자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글쓰기는 한국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내외경제신문(현 헤럴드경제신문)에서 논설위원,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기자협회 사무총장으로 재임중이다.